

백두대간에서의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주미¹ · 김재현^{2*}

¹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²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The Effects of Repeated Trekking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ity at Baekdu-daegan

Ju Mi Kim¹ and Jae Hyun Kim^{2*}

¹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²Department of Forestry and Landscape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요약: 본 연구는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위한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백두대간 산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0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를 반복적 참여자로 선정하고,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5회 미만 참여한 대상자를 일시적 참여자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변량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성의 5개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독립표본검정을 실시하여 사회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산행에 참여한 청소년의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 하위요인인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 모든 척도에 대해서 반복적 참여자가 일시적 참여자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긍정적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접근방법으로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peated mountain trekking experience in adolescent sociality. Fifty-eight adolescents who took part in Baekdu-daegan trekking program were analyzed as research subjects. The subjects were divided for comparative analysis. Those who participated 40 times or more from 2014 to 2015 were designated as repetitive participants, and those who participated 5 times or fewer from March 2016 to April 2016 were designated as temporary participants. The general attributes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compu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five sub-components of sociality, an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executed for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ociality was higher in adolescents who repeatedly participated in trekking. Repetitive participants scored higher than temporary participants in all measures of the sub-components of sociality: autonomy, lawfulness, diligence, cooperat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 have verified positive influence of repetitive trekking experienc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us far. Therefore, it supports the need of forest education as a fundamental approach to solving adolescent problems.

Key words: repeated, trekking experience, adolescent, sociality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SNS,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리고 소통의 속도는 빨라

져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폭넓은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방식은 깊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청소년기는 끈기와 인내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Oh et al., 2012). 따라서 청소년시기에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사회성이 요구된다(Won, 2007).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hyunk@konkuk.ac.kr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부모와 친구, 교사 등을 정서적·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벗어난 다른 공간에서 부모-자녀, 또래, 타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숲 체험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 및 활동들은 청소년의 자연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만, 단기간에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가급적 많이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Jeon, 2012). 또한 산행과 같은 지속적인 운동은 불안,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감소시키고 자기개념, 자긍심, 인지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Biddle, 1999). 이러한 체험활동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를 통해 여행활동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NYPI, 2012).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활동은 청소년들만 참여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것이 사회성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산행과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숲에서의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상을 오르는 등산 프로그램보다는 산의 경관을 즐기고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산행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진행한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백두대간을 중주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산행 참여의 정도에 따라 일시적 참여자와 반복적 참여자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5가지 하위요인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로 분류하고 측정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사회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성(sociality)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이다(Kim, 2010). 즉,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자 하는 개인 내부에 형성된 정의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성질이다(Kim et al., 1980). 사회성은 심리적 측면에서 인간성의 형성과정이며,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학습이며, 사회화(socialization)¹⁾ 과정 측면에서는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 된 것이며 후천적으로 환경을 통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다(Kim, 1992).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성이란 첫째,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성질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성격, 인성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험을 통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하위 개념과 구성 요소들이 모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성은 한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기술이다(Gresham and Elliott, 1984; Park and Lee, 2005). 사회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성 하위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성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표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성 영역을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5개의 사회성 하위요인은 Jeong(1971)의 초등학교 인성 검사지와 Kim(1992)의 건전한 사회성 검사, Kim(2010)의 초등학교 사회성 검사 항목을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Jeong(1971)의 인성 검사지의 준법성, 협동성, 자주성과 Kim(1992)의 건전한 사회성 검사지의 자율성, 근면성과 Kim(2010)의 초등학교 사회성 검사의 협력성, 대인관계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회성을 측정을 위한 요인을 1차 도출하였다. 이후 Son and Ha(2013)의 학교숲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의 숲에 대한 태도와 공격성 차이 분석에서 사용한 설문과 Kim(2010)의 멘토링을 통한 등산 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설문을 통해 숲에 대한 태도 및 산행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을 고려하여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영역 5개(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를 최종 도출하였다.

자율성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자발적인 특성을 가진 척도로써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Kim(1991)의

1) 사회화(socialization)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 동시에 공동체의 언어, 사고방식, 역사,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생활습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도덕적 규범들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Kim, 1992).

연구에서 자율성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고 자발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아래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어느 정도 자발적, 독립적, 계획적, 목표의식과 결단력 등이 있는지를 변별하고자 하는 척도라고 정의 하였다.

준법성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감정이나 의지를 말한다.

근면성은 부지런하고 어려운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 번 계획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감정이나 의지를 의미한다.

협동성은 집단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일하고 집단의 의사결정에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으로 산행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의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쉽게 사귀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사람들과 대화하며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생활하는 행태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산행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성 형성

반복적 산행이 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그간 연구된 산행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산행이란 올라가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으며, 산에 오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외에 어떠한 공리적인 의도를 갖지 않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였다(Kim, 1999). 특히, 사람들은 산행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고, 느끼고, 체득하는 것, 그리고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해 산행을 거듭하게 되고 새로운 산, 더욱 높은 산을 찾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산행에서는 위험한 상황과 판단력 및 순발력을 요하는 위험한 경험을 겪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산을 찾는다. 또한 이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교감, 안정을 얻기 위해 산을 찾는다(Mountaineers, 2006; kim, 2010). 산을 오르는 방법에 대해 분류하면 하이킹(hiking), 오리엔티어링(orienteeing), 클라이밍(climbing), 트레킹(trekking), 반더포겔(wandervogel) 등으로 나누어진다(Lee, 2010).

본 연구에서 진행한 산행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총 2년 동안 백두대간 전 구간을 종주하며 자연 경관을 즐기고 백두대간의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는 답사여행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산행의 종류 중 트레킹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산행은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된다. 야외체험활동으로서의 산행 참여는 신체적 건강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 즐거움,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Kang and Jin, 1997).

Oh et al.(1991)은 야외활동과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산행 및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생활에서 쌓인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분출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 밝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Ko and Lee(2001)의 신체적 여가활동 중목에 의한 사회심리학적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산행과 같은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Heo(2004)의 청소년 전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여가문화 활동이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회성, 도덕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련활동은 사회성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2007)의 연구에서 인류학자 Turner(1996)는 일상생활을 탈피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집단 조직력과 공동체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Kim, 2010, 재인용). 특히 집단적 체험활동의 일환의 산행경험은 청소년들의 이기적 사고와 생활태도,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경험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산행경험은 원만한 인격형성,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로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Kim, 1999).

Yum(2010)의 운동참여와 청소년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운동지속기간에 따라 사회성 발달 요인 중 활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ark and Cho(2004)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등산활동을 동아리 형태로 실시했을 때, 신체적 자기개념인 자아존중감, 건강, 신체활동, 신체전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야외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으로 효과적이거나, 인식의 변화와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남시의 특성화학교인 E중학교의 백두대간 산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그룹은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40회 이상 반복적 산행에 참여한 29명의 청소년과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5회 미만 참여한 청소년 29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성 구성요소를 정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백두대간 산행 프로그램 진행 이후 설문지에 대한 예비설명을 마친 뒤 학부모 및 청소년에게 동의서를 받고, 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서 일정 시간 동안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척도는 Jeong(1971)의 ‘초등학교 인성 검사지’와 Kim(1992)의 ‘건강한 사회성 검사’, Kim(2010)의 ‘초등학생 사회성 검사’에서 청소년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Son and Ha(2013)의 설문지를 통해 숲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산행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로 최종 수정·보완하여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3문항, 참여횟수 1문항, 청소년의 사회성 척도인 자율성, 준법성, 협동성, 근면성,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각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Table 1).

Table 1. Questionnaire Composition Index.

Variables	Subjects	Details	Time
Background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age, motivation	3
Independent variable	Frequency of participation	temporary, repetitive	1
Dependent variable	Sociality	autonomy	10
		lawfulness	10
		diligence	10
		cooperativeness	1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0

결과 및 고찰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 55.2%, 여학생 44.8% 이었으며, 초등학생 13.8%, 중학생 77.6%, 고등학생 8.6%로 중학생이 설문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Frequency(%)
Sex	Male	32 (55.2)
	Female	26 (44.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 (13.8)
	Middle school	45 (77.6)
	High school	5 (8.6)
Number of Participation	Less than 5 times	29 (50.0)
	More than 40 times	29 (50.0)

2.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사회성 하위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내어 연구자가 의도한 5개의 하위영역대로 추출되는지를 확인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사회성의 측정도구 50개 항목 중 10개 항목 중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이 0.4 미만인 항목이 없어 전체 50개 항목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은 KMO=.660, Bartlett's $\chi^2=163.748(df=45)$, $P<.001$, 준법성은 KMO=.663, Bartlett's $\chi^2=181.164(df=45)$, $P<.001$, 근면성은 KMO=.767, Bartlett's $\chi^2=178.202(df=45)$, $P<.001$, 협동성은 KMO=.706, Bartlett's $\chi^2=153.798(df=45)$, $P<.001$, 대인관계는 KMO=.616, Bartlett's $\chi^2=129.056(df=45)$, $P<.001$ 으로 5개 하위 요인이 사회성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이용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한 결과 사회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0.600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만한 것으로 여겨져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3. 사회성과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사회성 5개의 하위요인 각 변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Pearson의 이변량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성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준법성과 근면성의 상관관계가 $r=0.994$, $p=0.000$ 으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변수들이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5개의 사회성 요인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ems	Metrics	Communality	Factors	Eigenvalue	Explained variance	Cronbach's α
Autonomy	I set a personal goal whenever I go trekking.	.784	.877	2.619	70.690	0.639
	I look forward to the day of trekking.	.622	.745			
	I look for a new way by myself when I go trekking.	.739	.765			
	I do not need my parents' instructions to get my work done.	.727	.813			
	I participated voluntarily to the trekking.	.536	.603			
	I clean up my trekking gears myself.	.829	.846			
	I am still unsure of the reason why I go trekking.	.718	.609			
	I tend to play around with my friends while trekking.	.796	.622			
	Trekking gives me renewed motivation and energy for everyday life.	.778	.571			
I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mountain I will climb prior to trekking.	.541	.622				
Lawfulness	I observe the warnings and instructions written on signboards while trekking.	.805	.851	2.808	63.936	0.600
	I believe that mountains should be protected.	.801	.786			
	I believe that people seriously destruct forests.	.599	.771			
	I believe that some trekking rules and regulations can be ignored.	.720	.266			
	I stick to the designated route while trekking	.463	.509			
	I observe the rules of trekking.	.670	.847			
	I always on time for departure.	.662	.802			
	I keep the promise I make, even if I may not support the idea personally.	.501	.656			
	I have ignored the trashes that were thrown on trekking paths before.	.623	.311			
I look up for case studies of damages inflicted to the Baekdu-daegan whenever I go trekking.	.551	.698				
Diligence	I believe that I have become healthier through trekking.	.626	.700	3.426	62.419	0.712
	I often felt like giving up while trekking due to exhaustion.	.688	.788			
	I forget the troubles that I have been so far when I reach the summit.	.565	.745			
	Trekking sparked my interest towards Baekdu-daegan.	.743	.764			
	I participate in the trekking, even if I am very tired due to other things that occurred in the day before trekking.	.475	.631			
	I like going to the mountains.	.698	.827			
	I believe that trekking brings positive changes in my life.	.594	.688			
	I believe that I do not have to participate in trekking whenever I do not want it.	.642	.665			
	Trekking helped reduce my repulsion towards touching the soil or insects.	.587	.762			
I can forget about the worries of my everyday life while trekking.	.624	.734				

Items	Metrics	Communality	Factors	Eigenvalue	Explained variance	Cronbach's α
Cooperativeness	I believe that both people and organisms that live in forests are important.	.652	.754	2.404	61.858	0.701
	I follow the general consensus of group, even if I disagree with the opinion.	.440	.605			
	I carry the bags for exhausted people.	.731	.840			
	I often lend other people my belongings when other people have not prepared.	.492	.521			
	I have slowed down while trekking to keep pace with others.	.559	.665			
	I feel more comfortable when trekking together with others.	.696	.703			
	I help people around if they need my assistance.	.633	.762			
	I do not mind other people interrupting me while trekking.	.798	.889			
	I always return things that I have borrowed from others while trekking.	.580	.74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 pretend not to know the route when people ask me for the way because I find it bothersome.	.605	.077	2.487	69.093	0.633
	I apologize to my friends afterwards if I have verbally offended them.	.693	.735			
	Trekking increased the time I spend for conversation with my parents	.667	.764			
	I'd like trekking alone.	.767	.220			
	I enjoy trekking together with other people.	.686	.721			
	I feel uneasy and passive at places where I am not used to.	.910	.948			
	I get along well with people whom I have first met.	.749	.800			
	I made a new friend through trekking.	.712	.752			
	I get along well even with people who have opinions different from mine.	.561	.732			
My friends seek my advice when they have a problem.	.517	.553				
I share humorous stories with others while trekking.	.648	.625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Sociality.

Variables	Autonomy	Lawfulness	Diligence	Cooperativ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utonomy	1				
Lawfulness	.834**	1			
Diligence	.805**	.994**	1		
Cooperativeness	.764**	.981**	.987**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748**	.983**	.989**	.994**	1

** P<.01

4. 산행경험 빈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백두대간 산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사회성의 5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백두대간 산행프로그램에 2년간 매월 2회씩 총 46회 중 40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들은 비교집단인 5회 미만 일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에 비해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사

Table 5. Comparison of sociality on adolescent according to frequency of trekking experience.

N=58

Variables	Frequency	N	M	SD	t	P
Autonomy	temporary	29	3.15	0.48	-3.606	0.001 **
	repetitive	29	3.59	0.45		
Lawfulness	temporary	29	3.39	0.39	-2.809	0.007 **
	repetitive	29	3.68	0.38		
Diligence	temporary	29	3.43	0.39	-2.775	0.007 **
	repetitive	29	3.71	0.38		
Cooperativeness	temporary	29	3.40	0.39	-2.360	0.022 *
	repetitive	29	3.64	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mporary	29	3.38	0.39	-2.398	0.020 **
	repetitive	29	3.63	0.39		

* P<.05, ** P<.01, *** P<.001

회성 5가지 요인 중 근면성이 3.43±0.39로 높았으며, 반복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역시 근면성이 3.71±0.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3.15±0.48이었으나, 반복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3.59±0.45로 나타나 왔다. 자율성의 결과를 산행 참여 빈도에 따른 평균을 비교했을 때, 0.56의 차이가 나타났다. 5가지 사회성 하위요인 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율성 문항에서 자발적 참여여부를 분석한 결과, 매우그렇다 34.5%, 그렇다 29.3%로 전체 참여자의 63.8%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복적인 산행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주장에 쉽게 주관이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이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향상되었으며 부지런하고 계획된 일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활동을 할 때, 집단의 의사결정에 잘 협력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을 돕고자하는 경향성이 높아졌으며 타인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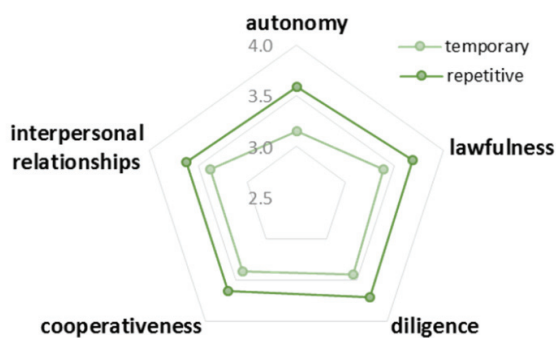


Figure 3. Comparison of means of adolescent sociality.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간 진행한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전 구간을 종주하는 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성을 5가지 하위요인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로 분류하고 측정하였으며, 일시적 참여자와 반복적 참여자의 사회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백두대간에서 진행한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0회 이상의 반복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의 자율성, 준법성, 근면성, 협동성, 대인관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5회 미만의 일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KYPI(2015)의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참여가 가족이나 단체와 함께하고,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도 연계할 수 있다. 또한 Jeon(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 및 활동들은 가급적 많이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족단위로 참여한 것을 고려할 때, 체험활동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를 통해 여행활동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반복적인 산행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Bandura(1986)의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은 아동발달이 아동과 환경 간의 계속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행동,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산행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도심 속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백두대간이라는 새롭고 낯선 자연환경에 친숙해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대처를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협동성 등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는 Park and Cho (2004)의 연구에서 동아리활동 형태로 실시한 지속적인 등산활동이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개념 즉, 자기 존중감, 신체활동, 건강,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산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 후 행동의 변화와 결과를 관찰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과 발달은 타인 또는 어른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이루어진다. 특히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산행 프로그램에서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되어 청소년의 사회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함께하는 산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힘든 곳에서 서로를 돕고 걱정하며, 무의식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이 쌓여 서로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함께하는 산행경험은 소외계층 청소년의 공동체 참여를 통한 유대관계 형성과 활발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으로 정서적,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사회성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백두대간은 생태적, 역사문화적, 공간적 특성상 청소년들의 반복적으로 산행을 통한 사회성 형성의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백두대간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있어 반복적 산행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Kang, H.M. and Jin, J.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port Activity Satisfac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8: 165-176.
- Ko, S.H. and Lee, J.Y. 2001.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physical leisure activities with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actor.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0(3): 93-106.
- Kim, K.C. 1999. Mountaineering Experience of Adolescent's Outdoor Training Activities: Alfred Schutz's Phenomenological Sociology Approach. Graduate School,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 Kim, D.W. 1992. An Analytic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ealthy Sociality Scale.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ing Sejong University.
- Kim, M.J. 2004. The 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s with Their Subject Preference and Sociability.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Kim, J.D.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ity Examination Tool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Its Feasibility.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6(6): 161-181.
- Kim, J.S. 2010. Influence of mountaineering program with mentoring on ego-identity and community spirit of adolescent. Dept. of Social Welfare&Christia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Park, J.Y. and Lee, B.I. 2005. Effects of Art Activities with Peers on Social Skills of Child with Aggressive Behavior. *Korea Journal of Art Therapy* 12(2): 339-354.
- Park, J.S. and Cho, C.H. 2004. The Effect of Regular Climbing Activities on Physical Self-concept of the youth.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2: 647-665.
- Oh, D.S., Ha, M.G. and Kim, S.H. 1991. Outdoor Activity and Education. Hyungseul.
- Oh, C.H., Park, S.G. and Oh, I.J.. 2012.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Forest Experience Program for the Internet Addiction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5): 2395-2415.
- Won, H.Y. 2007. Influence of Judo Training on the Elementary Students' Personal Traits and Social Development.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 Yum, T.K. 2010. Influence of the Sports Participation on mental health and Sociality among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Y.D. 2010. Climbing dictionary. Hainaim.
- Seong, E.M. 2013. A Study on linkage between introduction of free school term and experience activit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 Son, J.W. and Ha, S.Y. 2013. Examining the Influence of School Forests on Attitudes Towards Forest and Aggress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17(4): 49-57.
- Son, J.W., Ha, S.Y. and Kim, J.J.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Forest and Aggression in Young Peopl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2(1): 74-81.
- Jeon, M.J. 2012.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inity and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Lif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Jin, J.H. and Kang, H.M.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port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8: 165-176.
- Choi, I.S. and Ha, S.Y. 2015. Experiential Changes of the Young People through Ecological Experience Activities: Targeting the 2014 Green Camp Participants.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27(2): 99-114.
-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2. Study on Development value and social-economic value of Youth Experiential Activit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Heo, J.C. 2004.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Whole Man on Self-identity Formation to Establish Adolescent Policies.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 Ambrose, R. P. 1988. All Day kindergarten: One Model That Works.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ternational. Salt Lake City, UT. April 21-24.
- Bandura. 1978. The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 344-358.

(Received: March 2, 2017; Accepted: April 20, 2017)